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9일 수요일 음 12월 17일 (9물)

기상정보



흐리고 한 때 비

제주는 흐리고 한 때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C, 낮 최고기온은 7-10°C로 전망된다. 중산간 이상에는 낮은 구름대에 의해 갑자기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60%
0%	성 산	20%
20%	고 산	60%
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리고 비 1/7°C
모레 ☀️ 구름 많음 3/10°C

월드뉴스

로마 16세기 저택 5000억원대 경매나와

세계 유일 카라바조 천장화 소장

바로크 거장 카라바조의 천장화를 품은 이탈리아 로마의 바로크풍 저택이 경매에 나온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도심에 있는 빌라 루도비치가 18일(현지시간) 경매에 부쳐진다. 시작가는 3억5300만유로(약 4808억원)다.

1570년 건립된 이 저택은 2800㎡(약 847평) 규모로 십자가 모양의 4층짜리 건물 한 채와 넓은 정원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통용되는 태양력을 제정한 그레고리오 13세(재위 1572~1585)와 그레고리오 15세(재위 1621~1623) 등 교황 2명을 배출한 루도비치 가문이 1621년부터 소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매에 나온 5천억원대 16세기 저택.

원래는 루도비치 가문의 사냥용 별장이었던 이 저택이 유명해진 것은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 화가로 꼽히는 카라바조의 천장화 때문이다. 카라바조가 남긴 유일의 천장화로 그가 20대 후반 때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의 감정가액은 4억7100만유로(약 55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카라바조 천장화 가치가 약 3억1000만유로(약 4222억원)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조 상 윤
제주의 대표 신문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강 준 혁

한의학 박사

범죄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임이 경찰서에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다.

서귀포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실 산하에 소속 경찰관과 민간인들 약 3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는 한의사로서 한약 지원 사업을 제주도한의사회 봉사단과 같이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피해자 열 명 정도를 만나게 됐다.

범죄는 사고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위원회(2)

생각에 내 마음도 아플 때가 많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질병까지 일으키게 하고 그걸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한약을 처방하게 된다.

환자들의 주된 증상은 불안감에서 오는 불면이나 두근거림, 소화장애, 두통, 흉통 등을 호소하고 식욕부진이나 무기력 증상들도 있게된다.

환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주된 처방은 안심, 안정시키는 처방에 현 증상을 완화시키는 처방을 첨가해서 처방을 구성하는데, 상담 과정에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도 환자들한테는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당사자가 느끼고 있을 슬픔이나 허탈함,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한약은 3주 분량씩 처음에 주고

나서 3주 후에 다시 재진하고 3주를 더 처방해서 보내주는데 의사로서 보람이 그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대개 한 가족이 같은 피해를 겪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이 단체로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한 가족을 전부 상담해서 처방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세월이 약이라고 커다란 충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누그러 지겠지만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할 수 있게 한약을 써서 도움이 되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된다.

피해자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게 부담감이 없이 드리는데, 그것이 단지 무료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성껏 복용을 해서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빌면서 처방을 하고 보내주고 있다.

한의학에 심주신(心主神)이라고 해서 정신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이론이 있다.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픈다는 것은 그런 충격을 인지하는 건 뇌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심장이란 장기가 정신을 주관하는 장기라서 마음이 아프다거나 가슴이 아프다는 이런 말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안정제가 아니라 안심(安心) 시키고 보심(補心) 시키는 한약제로 환자들이 고통을 경감 시켜줄 수 있다는 것에 한의사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범죄나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일단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린마당

겨울철 한랭질환 조심 하세요



강 창 준

제주시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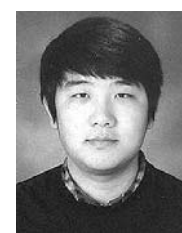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212명의 한랭질환이 발생했고 이중 34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랭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은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다. 저체온증 위험군은 음식섭취나 보온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노숙인,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이 걸리기 쉬우며, 동상 위험군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자, 극심한 추위에도 장갑, 신발, 양말 등 적절한 의복을 챙기지 않는 경우이다.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 동상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평소 절주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2020~2021절기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에 신고된 한랭 질환자의 23.6%가 음주 상태로 쓰러진 경우다. 한랭 질환자 발견시 조치요령은 평소 날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히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빠르게 119로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면 된다. 한랭질환 예방 4대수칙은 평소 가벼운 실내운동과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실내적정 온도를 18~20°C로 유지하고 건조 해지지 않도록 하고 날씨에 추울 경우 외출을 피하고 외출시는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따뜻한 옷을 챙겨 입도록 하자.

시민이 직접 만드는 안전한 서귀포시



김 태 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시책을 발굴·지원, 전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밝고 안전한 서귀포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사례 공모전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포스터, 시, UCC 동영상 등 총 175점의 작품을 접수해 23점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수상작을 활용한 안전문화 실천 달력을 제작하며 안전문화 운동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또한,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와 협력해 112 신고위치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 대정읍 일원 4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2018년 표선면 일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7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사고 예방에도 한몫하고 있다.

더불어 예래동연합청년회와 어린이 교통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을 통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 영상 교육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올해도 서귀포시는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지원해 서귀포시민 모두의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문화 캠페인, 재난대응요령 홍보,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 등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일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줬으면 한다.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시방병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